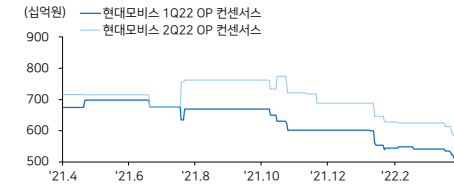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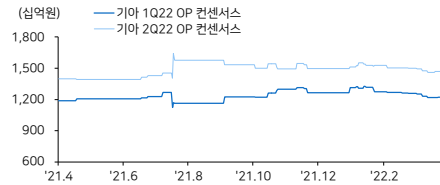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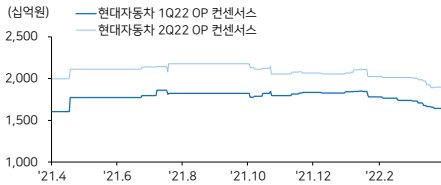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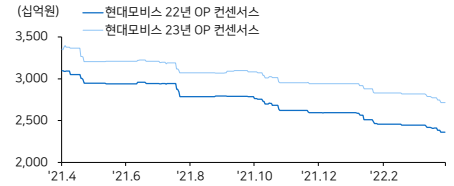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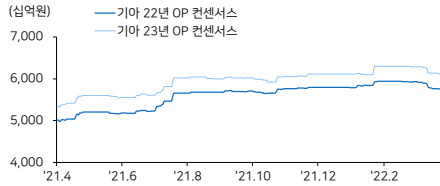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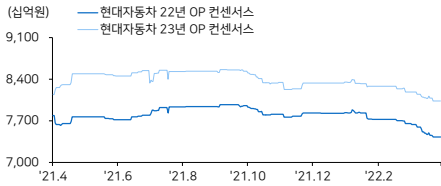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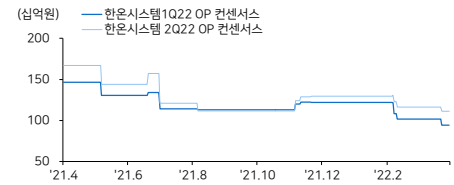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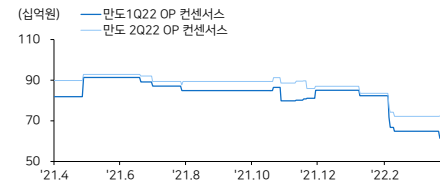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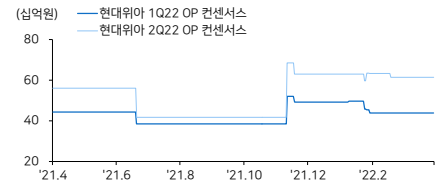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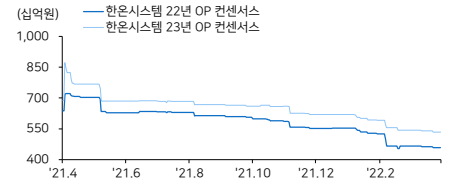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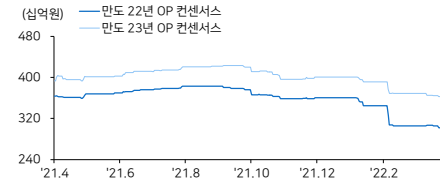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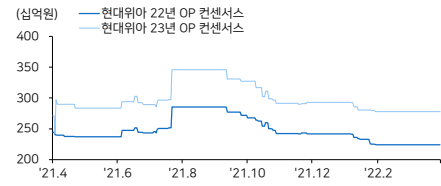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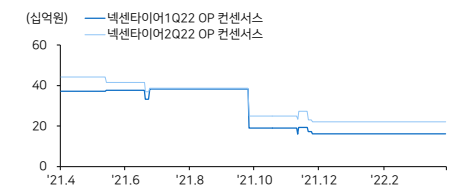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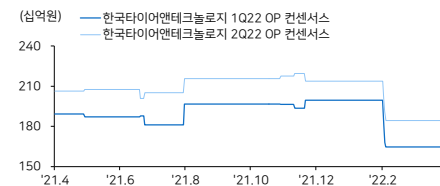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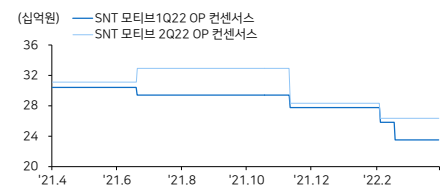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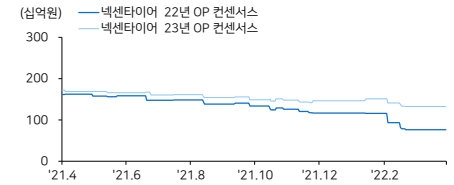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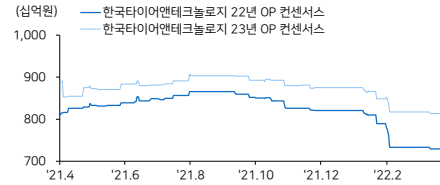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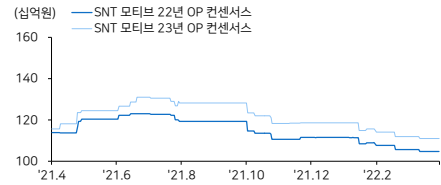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1분기 미국 판매 3.7% ↓...제네시스 역대 최저 (연합뉴스)

현대차와 기아는 1분기 미국에서 yoy -3.7% 감소한 322,593대를 판매할. 도요타(-14.7%), GM(-20.4%) 등 경쟁사의 감소율 대비 선방했다는 평가. 제네시스는 역대 1분기 중 최저 판매인 171,399대를 기록함.
<https://bit.ly/3j4oiYJ>

중 자동차 산업, 오미크론 발병 봉쇄 위기 확산... "현대차도 예외주시" (전자신문)

중국 당국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국한적 봉쇄 조치를 이어가며 현지 진출 완성차 업체들이 영향을 받는 중. 앞서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 창춘, 선전 등 봉쇄로 인한 부품 부족으로 국내공장 공피치 가동을 한 바 있음.
<https://bit.ly/3NK5SINK>

Tesla unable to restart Shanghai production on Monday (Reuters)

테슬라 상해공장이 월요일(4월 4일)에도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테슬라는 기존에 4일간만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정부의 락다운 연장으로 지난 금요일-토요일 생산 계획을 취소한 바 있음. 생산 재개 시점은 알려지지 않음.
<https://reut.rs/35zSszN>

U.S. boosts fuel efficiency rules as Biden reverses Trump rollback (Reuters)

NHTSA는 '24년, '25년형 모델 연식에 대해 연비 기준을 각각 8%, 10% 높일 것이라고 발표함. 이는 기존 8월에 제안했던 것보다 더 큰 폭의 인상. 이로 인해 '30년까지 소비자 연료비 1,920억달러 절감, 완성차 업체의 비용 증가가 예상됨.
<https://reut.rs/3K6sgvP>

유럽서 팔린 현대차 5대중 1대는 전기차 (파이낸셜뉴스)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1~2월 유럽에서 판매한 총 5만7842대 중 전기차는 1만1532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0%를 차지함. 현대차의 유럽 자동차 판매 중 전기차 판매비중은 2019년 6%, 2020년 14%, 2021년 14%를 기록 중.
<https://bit.ly/3NKPU35>

테슬라, 1분기 사상 최대 실적...고유가에 나홀로 질주 (조선비즈)

테슬라가 yoy 68% 급증한 310,048대의 1분기 판매기록을 발표함. 1분기 전기차 총 생산량은 305,407대를 기록함. 생산의 경우, 공급망 차질과 상해공장 일시 폐쇄(3/28~3/31)로 전분기(305,840)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https://bit.ly/3K4IOP0>

China's BYD ends full combustion engine cars to focus on electric, plug-in hybrids (Reuters)

중국 최대의 전기차 제조업체 BYD는 지난 3월부터 ICE 자동차 생산을 중지, 현재 BEV/PHEV만 생산한다고 밝힘. BYD는 3월 BEV/PHEV를 104,878대 판매, 전년 대비 약 4배 판매량을 기록함.
<https://reut.rs/3Ro60N>

Carmakers will "need to become miners" (Mining.com)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도 2030년 배터리 공급망을 위한 원자재가 충분하지 않을 것', '금광 부족은 미래 광산 건설 투자 부족이 이유', '2025년까지 배터리 생산이 1Twh 초과 불가능'하다고 밝힘.
<https://bit.ly/3DyQmY4>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